

〈‘원폭(原爆)의 날’ 특집〉

21세 이케다 편집장 「소년일본」 도전의 나날들

2021년 8월 4일

아이들에게 ‘핵폐기’의 바통을

태평양전쟁 패전 후 4년. 월간지 「소년일본(少年日本)」의 1949년 11월호에, ‘원자야(原子野[肯시야] : 원자들판, 원자폭탄 투하로 초토화된 땅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 특히 2차대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나타내는 말)의 꽃’이라는 소설이 실렸다.(글=아키나가 요시로, 그림=사토 타이지)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 투하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편집장은 21세의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의 엄한 훈련을 받으면서 도전하는 나날들이었다. “아, 왜 전쟁 따위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선량한 어머니까지 죽이려 하는 것인가?” 주인공인 소년은 원폭(原爆)의 비참함을 호소한다. 여전히 GHQ(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한 검열이 계속되고 있었다.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없는 시대였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거기에 지혜의 싸움이 탄생했다. ‘원폭의 날’ 앞에 사제(師弟)의 드라마를 더듬는다.

‘원자야의 꽃’의 주인공은 두 명의 남자아이다. 히로시마 시내로부터 학동소개(學童疎開 :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7월부터 전화(戰禍)를 피해 대도시의 아동들을 집단 또는 연고로 시골 등으로 피난시켰던 일)하고 있었지만, 어느 사건을 계기



21세의 이케다(池田) 선생님이, 뛰어난 출판인이다. 편집자였던 도다(戸田) 선생님의 밑에서 편집장을 맡은 「모험소년」 1949년 7·8월호(안쪽)와 「소년일본」 10·11·12월호. 피폭 직후의 히로시마에서 깊어지는 우정을 그린 ‘원자야의 꽃’(앞)은 「소년일본」 11월호에 실렸다.

로 칸지(貫二)는 쿠로다 선생님에게 엄하게 꾸중을 듣고 피난처인 절을 뛰쳐나와 버린다. 칸지와 절친한 사이인 미키오(幹夫)는 쿠로다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칸지를 찾아 히로시마 시내로 돌아간다.

“그날이야말로 1945년 그 시련의 날, 8월 6일이었다. 미키오가 히로사마역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 50분이었다.”

칸지도, 미키오도 저마다의 생각을 안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재회했다. 미군의 원폭 투하는, 그 직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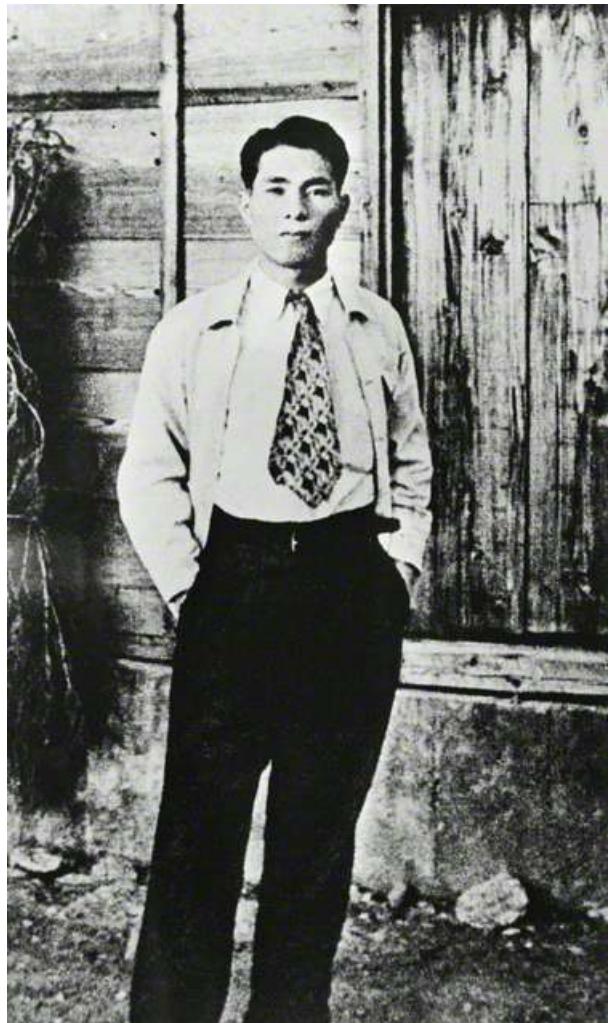
“……미키오가 다다미방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활짝 열린 장지문 너머로 소리 없는 새하얀 섬광이 번쩍였다. 눈이 휙동그레질 정도로 강한 불빛이었다.”

미키오는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방공호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다리는 특부러져 덩치 큰 사내에게 목덜미를 잡힌 것처럼 허공에 올라가 털썩 내던져 있었다. 우지직 하고 집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미키오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일본 헌법 제21조에 “검열(檢閱)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도쿄(東京) 스이도바시(水道橋)역과 가까운 일본정학관에서 「소년일본」을 둘러싸고 도다(戸田) 선생님과 이케다(池田) 선생님이 편집회의를 거듭하던 이때 일본 사회는 헌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다.

GHQ는 일본 미디어를 지배하기 위해 프레스코드와 라디오코드를 내놓았다. CIS(민간첩보국)에 속하는 CCD(민간검열국)가 메이저신문부터 어린이가 쓴 편지까지 모든 것을 검열했다. 점령정책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단속했던 것이다.

일본 전역의 편집자들이 이 검열에 고심했다. 도다 선생님은 전쟁 중 잡지 편집자로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했다. 그 싸움은 소설 『신·인간혁명(新·人間革命)』 제1권 ‘자광(慈光)’ 장(章)에 상세하게 적혀있다. 「소년일본」의 젊은 이케



「모험소년」「소년일본」편집장 시절의 이케다 선생님.

다 편집장은 이 확고한 신념을 지닌 투사(鬪士)로부터 훈도(薰陶)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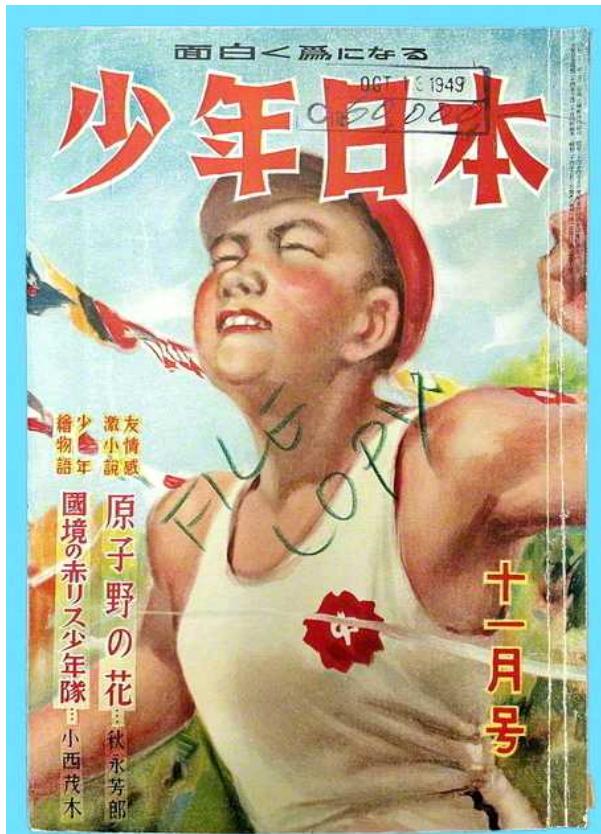
GHQ 검열 하, 아동소설로 ‘원폭의 비참함’을 호소한 사제의 마음

평전(評傳) 도다 조세이 (하)(제3문명사)에 따르면 ‘원자야의 꽃’ 이전에 원폭을 다룬 아동문학으로는 『쓰물네 개의 눈동자』로 알려진 쓰보이 사카에(壺井栄)가 GHQ의 검열이 시작되기 직전 ‘맷돌의 노래’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행본이 됐을 때 ‘원자폭탄’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또 ‘원자야의 꽃’과 같은 1949년에 잡지 연재된 와카스기 케이(若杉慧)의 ‘불의 여신’에도 ‘원자폭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소년일본』의 ‘원자야의 꽃’은 피폭 직후의 참상(慘狀)을 자세히 묘사했다. 폭풍으로 정신을 잃은 미키오는 어머니와 함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칸지를 찾아야 돼! – 미키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어머니가 말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간다.

“……주위를 보자, 얼굴 전체를 화상 입은 사람, 반쯤 떨어져 나간 손을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 다리가 큰 기둥에 깔려 신음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 미키오는 아이의 시체를 짊어진 채 실성해버린 젊은 모친의 모습도 목격한다.

한편 칸지는 자신의 다리를 질질 끌며 빈사(瀕死)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적십자병원에 막 도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숨이 끊어진다.



CCD(민간검열국)에 의해 검열되어 ‘프랑게문고’에 보관되고 있는 「소년일본」 1949년 11월호의 표지.(메릴랜드대학 고든 W. 플랑게문고 소장) CCD는 같은해 10월에 폐쇄되었지만, 이 11월호는 10월에 출판되어 오른쪽 상단의 날인이나 중앙의 글이 검열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표지 왼쪽에 ‘원자야의 꽃’이 크게 인쇄되어 있어 가장 독자가 읽어 주었으면 하는 기획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호(同號)의 투고란을 보면 가나가와(神奈川), 구마모토(熊本), 히로시마(廣島), 후쿠시마(福島), 아오모리(青森), 효고(兵庫), 가고시마(鹿児島), 이와테(岩手), 이바라키(茨城), 미에(三重) 등 일본 각지에서 읽혔고 ‘소일(小日)’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껏 웃음을 잊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다.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 것인가.”(삽화 설명문에서)

미키오와 어머니는 나룻배로 덴만가와(天満川)를 건너, 고이(己斐)역에 도착, 칸지와 쿠로다 선생님과 재회한다. 누군가 내뱉은 “아, 황야. 이 황야에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언제일까?”는 말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주고쿠신문(中国新聞)」1949년 10월 9일자 1면에 게재된 「소년일본」 같은 해 11월호의 광고.(히로시마 시립중앙도서관 소장) 나가사키(長崎) 일일신문 등 20개 신문에 게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광고 왼쪽에 ‘과학이야기 젠너 인류를 구한다 야마모토 신이치로’라고 쓰여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로(山本伸一郎)’는 이케다 편집장의 필명(筆名). 훗날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伸一)’의 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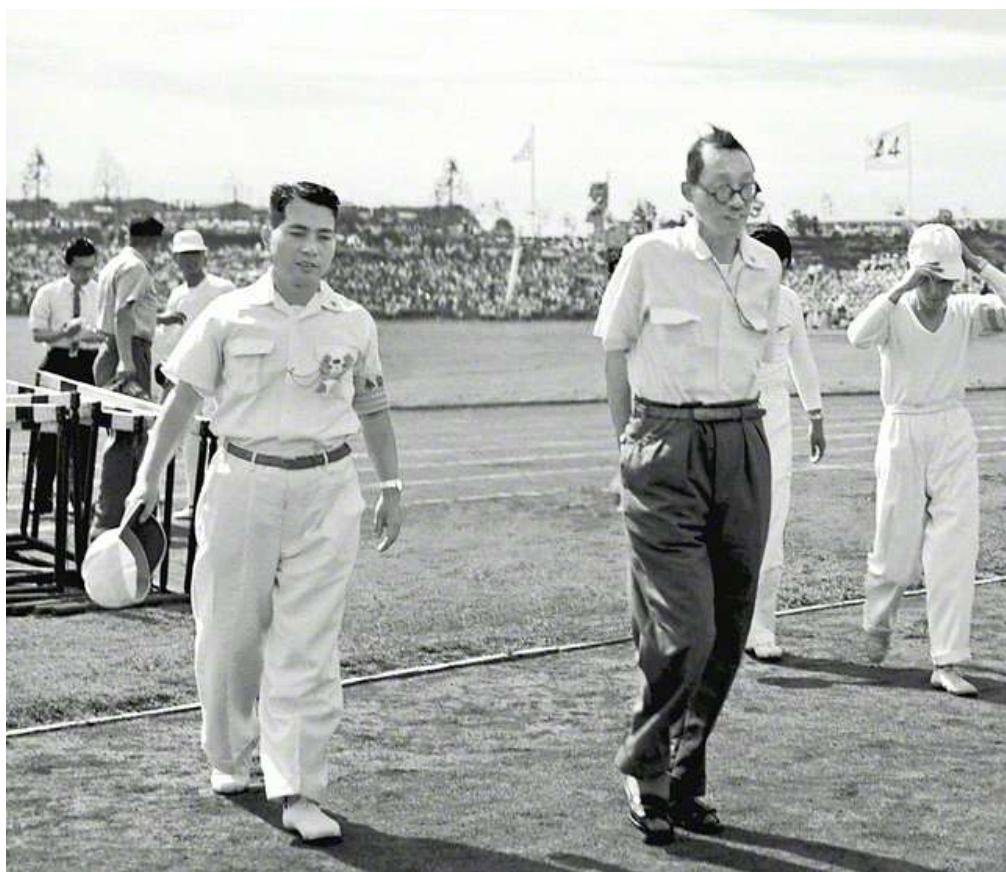
같은 11월호에는 이론 물리학자 나카무라 세이타로(中村誠太郎)에 의한 ‘원자력과 앞으로의 세상’라고 하는 읽을거리가 실려 있다. 이케다 편집장은 지난 호에서도 원자력을 크게 다뤘다. 인기 화가 고마쓰자키 시게루(小松崎茂_의 원자력 미래 예상도 가 권두 컬러를 장식하고 아인슈타인의 평전(글=사와다 켄)은 비참한 전쟁을 멈추게 한 원자폭탄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한편 원폭을 걱정하는 다음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만들게 한 원자폭탄의 장래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과학으로 볼 때 원자폭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올바른 평화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라며 지금 매우 열심히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

고경(苦境)을 넘어 ‘원수폭금지선언’으로 결실

「소년일본」은 도다 선생님의 사업의 경영난으로 휴간. 이케다 선생님은 고경(苦境)의 도다 선생님을 지탱하여 도다 제2대 회장이 탄생하고 75만 세대를 향한 전진이 시작된다.

‘원자야의 꽃’ 게재 8년 후 – 도다 선생님은 ‘원수폭금지선언(原水爆禁止宣言)’을 발표한다.



요코하마(横浜) 미쓰자와(三ツ沢)의 경기장에서 열린 청년부의 동일본체육대회 ‘젊은 이의 제전’에 참석한 도다 선생님과 이케다 선생님. 이 폐회식에서 도다 선생님은 청년에게 의탁하는 ‘유훈(遺訓)’의 첫 번째’로서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다. (1957년 9월 8일)

“… 핵 혹은 원자폭탄 실험 금지운동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 내면에 감추어진 발톱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 원수폭을 어느 나라이든, 그것이 이기든 지든 간에 그것을 사용한 자는 모조리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1957년 9월)

이케다 선생님은 이 선언에 대해 “원수폭의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타파(打破)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말하자면 생명의 마성(魔性)에 대한 ‘사형선고(死刑

宣告)’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열렬한 선언은 창가학회(創價學會)의 평화운동의 원점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를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국제파트너로서 행보를 함께 해 온 ICAN(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기억에 새롭다.(2017년)

이러한 대처의 원류(源流)의 하나는 아이들에게 ‘핵폐기’의 바통을 맡기려고 GHQ의 검열 하에서 아동소설로 ‘원폭의 비참함’을 호소했던 사제의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폭(原爆)의 날’ 특집〉 식자(識者)의 소리

2021년 8월 4일

히로시마대학 평화센터 준교수 반데르 두스루리
일본의 장래를 제시하는 용기 있는 출판



‘원자야의 꽃’을 펼친 순간, 불탄 전차의 삽화가 나타났습니다. 제 연구의 하나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사회가 전쟁이나 재해 등 비상사태를 타고 넘어 생명을 자아내는데 있어서 ‘기억(記憶)’이 가져오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실은 전자는 그 ‘원자야(原子野)’을 도망쳐, 친족을 찾은 피폭자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이미지입니다. 원자야를 본 사람의 시점에 기대어, 이 이야기를 말하고자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원폭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패배의 유산이었지만, 1952년의 주권회복까지 보도는 터부(taboo,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과 마주하고, 새로운 것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제대로 근거로 해 다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확실한 자세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는 편집자의 큰 결의마저 느껴집니다. 당시 이케다 편집장은 21세로, 자신도 1930년대에 군국주의의 교육을 받은 대전의 원체험자입니다.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차세대에게도 반성(反省)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자야의 꽃’에는 빈사(瀕死)의 친구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사(無私)의 사랑과 우정의 정신은 당시 어린이들이 받은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폭 공격(自爆攻擊)의 총력전으로도 변모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버린 생명, 같은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지금부터는 눈앞의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은 그대로 계승해 새로운 형태로 전해 간다, 한편, 잘못을 마주하고 두 번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평화로운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쌍방의 의사(意思)가 이 작품에는 보입니다.

또 이 잡지는 젊은 사람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세계에서 활약하는 일본을 담당하기 위해 당시 세계정세의 지식을 제공하고 보편적인 평화의 방법을 이야기로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과 커뮤니티의 양성을 통해, 장래의 일본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비전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고쿠신문사 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장 겸 논설위원 카나자키 유미

‘핵무기 없는 세계’로의 관심(關心)의 연원(淵源)



‘원자야의 꽃’에 그려진 어린이들의 진지한 사연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첫머리는 학동소개의 장면입니다만, ‘이것을 읽은 히로시마의 아이들은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졌겠지’라고 느꼈습니다. 전쟁의 쓸쓸함, 슬픔이 잘 묘사되고 지리적 묘사도 잘 되어 있습니다. 피폭 직후의 혼란과 아이의 감정이 아주 잘 전해져 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부흥을 향한 강한 마음, 기백이 느껴집니다.

GHQ의 프레스코드가 엄격한 속에서 나타난 표현활동이며, 같은 잡지에 실린 다른 기획과의 밸런스를 보아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검토했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잡지에는 편집장의 취향이 나옵니다. ‘원자야의 꽃’의 편집 작업은 이케다 SGI 회장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는 연원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았습니다.

1949년은, 8월에 ‘히로시마 평화 기념 도시 건설법’이 시행되어 각지에서 전쟁의 기록 문학이 번성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11월에는 GHQ의 CCD(민간검열국)가 검열에서 철수했습니다. ‘원자야의 꽃’은 이러한 세태가 아동문학에도 반영된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피폭체험에 대한 읽을거리는 아직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샤의 ‘주니어 주고쿠’라는 어린이를 위한 신문에서는 원폭의 화제가 미미하게나마 나온 것은 같은 해 12월 24일자. 어린이 자신이 쓴 피폭체험 수기로 한 권으로 정리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오사다 신편『원폭의 아이』가 출판된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 2년 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원폭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창작 읽을거리가 전국에서 읽히고,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 피폭체험을 공유한 의의는 큽니다. 도다 회장이 1957년에 세계에 호소한 ‘원수폭금지선언’의 원점의 하나가, 이러한 죄도 없는 아이들의 피폭체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